

글쓰기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사례 - 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2009. 10. 07. (수) | 조제희(California State University)

서론

표절의 정의

표절(plagiarism)이란 학문의 부정직(academic dishonesty) 범주에 속하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로서 글쓰기가 실수건 의도적이건 상관없이 타인의 생각, 표현된 문장, 그리고 글의 일부나 전부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인용의 표시도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글쓰기에서 표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표절은 타인의 글 중 상당수의 단어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베껴 쓰고 이에 자신이 쓴 글을 약간 합하여 어느 부분이 남의 글이고 어느 부분이 자신의 글인지 구분이 가지 않게 하여 이에 대하여 인용(quote)하거나 하지 않은 채 출처(cite)를 밝히지 않은 경우이며, 원 글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여 빌려 쓴 후 실수건 의도적이건 인용을 하지 않고 출처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은 경우와, 남의 생각을 단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을 짜깁기하여 하나의 글을 작성한 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타인이 쓴 글 전체를 그대로 자신의 글로 위장을 하는 경우, 심지어는 자신이 쓴 글의 일부를 또 다른 자신의 글에서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 어느 학문분야에서든 간에 글쓰기는 글 쓰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 쓰는 이들은 신경을 써서 표절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히는 도덕적 덕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여러 소사회 혹은 다양한 학문 분야로 형성된 미국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래에 자신의 꿈을 펼치려하는 학생들이 글쓰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몽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하고, 표절의 정의, 이에 대한 구체적 행위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들을 학칙에 밝혀놓았으며, 교수들은 학기 초에 자신의 강의 계획서에 표절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기 내내 학생들이 글(essay)을 쓰면서 타인의 글에서 두세 자 이상을 있는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표절을 범하는 이유

대부분의 미국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표절(plagiarism)에 관해 학교와 선생들로부터 자주 교육을 받아 이 행위가 범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의 이런 저런 이유와 시정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표절은 보통 글쓰기 과제가 주어진 후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면서 일어난다. Pruitt-Mentle는 학생들이 표절을 하는 이유들을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공하고 싶어서, 교수의 강의를 이해 할 수가 없어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9). 또한 헛초빌 소재 앨라배마 대학교 웹사이트에 의하면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글쓰기가 미숙하다던가, 리서치 방법을 모른다던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할 지를 몰라서 혹은 인용할 줄 몰라서, 자신의 주위의 친구,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기대에 못 이겨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글을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글 숙제를 완성하려는 시도를 한다던가, 혹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그럴 수 없어서, 배운 지식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던가 하는 경우에 표절을 한다고 한다(Preventing, A). 그리고 표절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여전히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글

을 베끼는 경우도 있거니와, 과거에 자신 혹은 친구가 과거에 다른 과목 시간에 사용했던 글을 그대로 다시 제출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미국 대학교 학생들의 표절에 관한 현황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글쓰기 표절은 때로는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로 행해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1년 5월 New York Times가 보도한 University of Virginia의 물리학 입문 강좌에서 발생한 학기말 글쓰기 부정행위 스캔들과 (Schemo) 2007년에 발견된 Ohio University의 기계공학과에서 발생한 석사학위 논문들의 표절행위이다 (Finder A15).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입문을 가르치는 블룸필드(Bloomfield) 교수는 학기말 글쓰기 점수를 타 학생보다 낮게 받은 한 학생의 불평을 들은 후에 글쓰기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이를 이용해 과거 다섯 학기 동안에 제출된 1500편의 학기말 글쓰기를 살펴본 결과 60편의 글이 표절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발견으로 인해 학교 당국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총 158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이들을 학생 자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는 59명이 불명예스러운 짓을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48명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28명은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며 심의도중 학교를 떠났고 나머지 20명은 유죄가 인정되어 퇴학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그 과목을 수강한 전체학생수의 2%에 지나지 않았다고 학교 당국은 발표를 하였다(Boorstein B01). 처벌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표절이 범법행위이고 그 처벌이 가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오하이오 대학교는 담당 교수로부터 자신의 논문 주제를 승인을 받지 못한 한 학생이 과거 20년 전부터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쓴 20개 이상의 졸업 논문들이 표절이 됐다고 제기함으로써 야기된 표절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계공학과 두 명의 담당 교수들은 해직하였다(The Associate Press).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학교 당국은 약 1500편의 공과대의 논문 가운데 무작위로 200편 이상의 석박사 논문을 추출하여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2007년, 5월) 한 건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고 열두 명에게는 논문을 다시 쓰도록 하였다(Finder A15). 문제는 이들 논문의 저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논문을 쓸 당시 표절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였다(The Associate Press).

미국의 대학교에서 표절을 저지른 학생들의 숫자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비록 아직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직까지 없고 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표절을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Gresham, 48), 1997년 The Psychological Record의 표본에 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절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무려 36%에 이른다고 한다(www.plagiarism.org). 또한 UC Berkeley 대학교 신경생물학과 교수인 프리스티 박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320명의 학생들 중 45명이(약 14%) 글쓰기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인터넷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베꼈거나 통째로 복사를 한 표절을 범한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는 그가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절을 찾아내겠다고 경고를 한 후에 발생한 숫자이다(Kopytoff). 한편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선 2006-2007년 한 해 동안에 140여건의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가 상벌 위원회에 보고되었지만, 2007-2008년에는 206건이 보고되었다(Tschirhart). 물론 보고된 숫자는 교수가 학생과 면담 후에 여전이 문제가 존재하여 상벌위원회에 이관된 경우이므로 면담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된 숫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표절의 경우의 수가 증가된 이유는 표절을 밝혀내는 컴퓨터 기술의 향상에 의한 것이라고 학교 당국자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UC, Davis 대학교 신문인 The California Aggie에 따르면 2007-2008 학년도 동안 241명의 학생이 표절로 인해 적발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Campus Judicial Report, 10/1/2008). 상황이 이런데도 표절이 의심되는 글을 적발하여 이를 보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교수들의 숫자가 무려 55%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고 하는 불합리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표절을 발견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교수 자신의 주 임무가 가르치는 것보다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에서다(Facts about Plagiarism).

한편 표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와 다른 비율을 보여주는 대학교들도 있다. 예를 들어 MIT에서 매년 적발된 표절의 경우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MIT 학생 신문인 The Tech Online Edition에 따르면 매년 표절로 보고가 되는 수는 약 14-15건에 지나지 않으며, 2003-2004 학기에 약간의 증가가 있어 18 건이 보고가 되었다 한다. 이는 MIT 전체 학생의 수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숫자이며, 그나마 상위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선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표절로 보고되는 숫자는 매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한다(Lin). 또한 하버드 크림슨(The Harvard Crimson) 학교 신문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에선 지난 2003-2004 학년도에 발생한 표절의 건수는 22건인데 반해 2004년 가을학기 동안만 25건이 발생하여, 한 해 동안에 127%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큰 문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증가 이유를 그 당시 법과 대학에서 발생한 몇몇 교수들의 표절 사건의 여파에서 찾고 있다(Lurie). 하버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에서도 표절로 인해 처벌을 받는 학수가 2005-6학년도엔 21명, 2006-7학년도엔 19명으로 비슷하게 발표되었다(Princeton University).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발달은 학생들이 더 쉽게 그리고 더 교묘하고 정도가 심한 표절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저지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로 인해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다(Gorman 297, Embleton and Helfer 23, <http://www.plagiarism.org/>). 다수의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한 후 몇 문장정도 잘라 붙이는 형태의 표절을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며, 도널드 맥케이브(Donald McCabe)에 의하면 1999년도 21개의 다른 캠퍼스에서 이천 백 명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들 가운데 75%가 과거 대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하였다.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10%만이 인터넷을 이용하였는데 2001년에는 무려 41%의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타인의 글을 도용하였다고 했다(Embleton and Helfer 24). 그리고 2000년 4월과 5월에 www.turnitin.com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UC 버클리 대학교 학생들의 글들 중 30%가 인터넷에서 직접 표절을 한 것이 드러났다(Pruitt-Mentle 16). 그리고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표절을 해본 적이 있다고 고백한 학생들의 비율이 무려 70%나 되었다(McGuirk 2). 최근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고, 또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이 늘어만 가는 것도 사실이다(Fritz 1). 요사이엔 에세이를 대필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을 사서 제출하기도 한다- Fritz에 의하면 인터넷 상엔 Term-paper를 대필해주고 이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180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

글쓰기의 대필은 표절 중에서도 의도와 죄질이 가장 나쁜 부류에 속한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필을 해서 글 숙제를 제출한다는 행위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드려 지지 않을뿐더러 대필에 대한 통계도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대필은 어느 누가 이에 대하여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 대필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월마트의 상속녀, 엘리자베스 페이지 로리(Elizabeth Paige Laurie)는 대학시절 자신의 룸메이트인 엘레나 마르티네즈(Elena Martinez)가 ABC TV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20/20에 출연하여 이만 불을 받고 세편의 학기말 페이퍼와 여러 편의 숙제를 도와 줬다고 고백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USC 대학교 학사 학위를 반납해야만 했다(2005년 10월19일자).

이처럼 최근 들어 비록 부정행위가 발각된 학생들의 수가 늘어가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사회와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은 글쓰기 표절에 관한한 대외적으로 무관용(zero-tolerance)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도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쉽게 남의 생각과 글을 도용할 수 있어 대

학 당국과 교수들도 이를 탐지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 글쓰기 표절행위는 학내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으로 학생의 글쓰기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여타의 범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과정은 학생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시기부터 공식적이게 된다. 다행히 그 학생이 면담 시 표절을 했다고 시인하고 표절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여 처벌은 그를 계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학생이 과거에 표절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있거나 표절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의도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상벌 위원회(Judicial Affairs)로 회부되고, 그에 대한 심판은 학교 당국이 마련한 상벌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일단 표절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의도적이거나 습관적인 글쓰기 표절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들과 부정행위를 밝혀내려는 교수사이의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다.

본론

표절에 대한 조사와 적발

표절을 밝혀내는 일은 담당교수로부터 시작되고,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의 글이 표절을 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일이며, 이 과정은 글을 이루고 있는 비정상적인 부분의 발견, 이에 대한 증거수집, 표절의 정도확인, 그리고 조사의 결과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학생과의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교수는 학생의 글을 읽고 단지 어느 부분이 학생이 쓴 글이 아니라고 느낀다고 해서 바로 표절로 간주할 수 없다. 표절은 보통 해당과목 교수가 학생이 제출한 글을 읽으면서 학생의 글 실력(voice)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다른 작가가 쓴 작품을 학생이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을 인식을 하거나, 사용된 문장의 스타일이나 표현 혹은 단어의 사용이 현격한 차이가 난 부분이 있거나, 글이 교수가 제시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형태(genre)가 맞지 않았거나, 또는 여러 학생들이 같은 단어/문장/내용 등을 사용했을 때 발견된다(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일단 표절이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밝혀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교수 개인인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schirhart).

글속에 표절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알아내려면 교수는 개개인의 학생들의 글 실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 실력의 차이를 알아 낼 수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교수가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쓰게 한 학생 자신의 글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글(diagnostic writing)과 표절이 의심되는 숙제로 내준 글(assigned essay)을 대조를 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예전엔 학생이 표절을 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밝혀내기가 용이하지 않았었다. 어느 부분을 베꼈다고 심증은 가는데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를 찾아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예를 들면, 단순히 과제를 주고 최종 원고만을 제출받는 교수법(product-oriented pedagogy)을 사용하는 시기에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이 가르친 비슷한 과목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타 학생이 쓴 글 전체를 학생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제출했을 땐 이글을 전혀 읽어 본적이 없는 교수는 대필을 밝혀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었다. 하지만 근자에는 교수가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관장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채택함으로써 표절을 좀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표절을 밝혀내는 사이트들이 있어, 예를 들면 www.turnitin.com 와 <http://www.ithenticate.com/> 등,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글이 있으면, 글 전체를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치엔진에 넣으면 그 엔진은 어느 부분이 표절이 되었는지 그리고 표절을 정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만약 표절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서치엔진을 사용했지만 잘 가려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교수가 이를 찾아낼 수 없을 땐, 상벌위원회가 표절을 가려내는 일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학교도 있다(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표절에 대한 비공식적인 확인 절차 및 처벌

시간을 투자하여 표절에 대하여 증거를 찾아낸 후엔 이를 근거로 왜 이 부분이 표절인지 그리고 누구의 글, 단어, 표현, 혹은 문장들이 어떻게 무단도용이 됐는지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표절의 정도를 알아보고 학생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상벌위원회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 교수는 표절을 발견한 날로부터 보통 두 주내로 결정해야 한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과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그리고 이 결정권은 전적으로 해당 교수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교수는 표절의 정도가 사안이 미미하거나 실수로 혹은 학생이 표절을 방지하는 방법을 잘 몰라 발생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면 비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미시건 주에 소재한 호프 대학(Hope College)은 교수들에게 면담은 보통 발견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학생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생이 이로 인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며, 당혹감을 갖지 않도록 정중하게 해야 하며,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제시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그리고 공정성이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면담 중에 교수는 학생도 자신을 보호할 권한과 반론권이 있다는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반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가 학생과의 면담 시에 신빙성이 약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 없이 직감만으로 표절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면 학생의 이유 있는 반박에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학생의 설명이 타당하게 들린다면 학생의 장래를 위하여 표절에 대한 조사는 어떤 형태의 보고서나 더 이상의 어떤 행동도 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학생도 표절을 했다고 인정하여 표절의 사실과 그 정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처벌을 해당교수에게 결정하도록 일임한 학교에선 교수가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처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당국이 처벌의 수위를 교칙이나 법으로 명문화 해놓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글이 표절로 판명이 나면 이를 상벌 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Stanford 와 UC Irvine). 재량권을 교수에게 주어진 경우엔 학생이 표절의 의도가 없었거나 사안이 약한 경우, 즉 인용하는 방법을 학생이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실수에 의한 사소한 인용 누락을 한 경우, 부정확한 인용 방법, 말을 바꿔 설명하면서 인용을 단순히 누락한 경우, 표절이 학생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 학생이 지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저지른 첫 표절은 그 학생이 다음에는 표절을 범하지 않도록 계몽을 하는 방향으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용 방법을 모른다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표절을 범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비공식적으로 학생에게 단순 경고를 하거나, 반성문을 써오도록 하거나, 과제를 고쳐 오도록 하거나 다시 써오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글에 대한 점수를 감점하거나 혹은 점수를 아예 주지 않거나, 정도가 정말 심하면 재수강을 요구하기도 한다. 비공식 과정에서 교수가 정하는 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선도하고 보호하려함에 있으므로 그 처벌은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로 내려지게 되고, 부정행위는 서류상으로 어떤 흔적이 남지 않게 처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학문의 정직성(academic honesty)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예외 없이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해당 학과나 표절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부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표절의 정황과 종류, 표절에 대한 증거 제시, 학생과의 면담일자, 면담 내용, 학생 자신의 입장, 반론, 그리고 학생의 표절 책임에 대한 인정의 여부, 그리고 교수가 내리는 처벌의 수준을 설명하도록 하는 란들을 담고 있다(UC Irvine).

표절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

면담 중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절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거나, 표절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을 때 이를 발견한 교수는 왜 학생의 글이 표절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표절이 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질러졌는지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표절임을 증명하고, 교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학생과 면담을 한 후 표절에 관한 관련 자료

와 이유서를 첨부하여 표절을 범한 학생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기 원하는지도 밝혀 담당 학과 학과장에게 통보를 하거나 혹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바로 넘기기도 한다. 그리고 통보 이후로는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게 때문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담당 교수의 재량권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또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표절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쟁점사항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 사안이 중하여 그 표절의 징계를 혼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학생과의 면담 없이도 교수는 표절의 문제를 학생, 교수, 그리고 학교 직원으로 이루어진 상벌 위원회나 학생처로 직접 넘길 수 있다. 보고 이후에 처벌에 이르는 과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교들은 이에 대한 처리과정, 즉 부정행위에 관한 확인 작업과, 표절이 밝혀졌을 시에 그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각각 달리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 학생 수첩이나 학교 웹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표절은 교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행위와 같이 취급이 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절차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의 학교에선 교수가 학생과 학과장, 그리고 학생처 부처장 혹은 상벌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보내는 서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학생의 신상정보, 학생과의 면담 날짜, 표절이 담긴 글의 제목, 표절이 발생한 과목, 표절을 발견한 날짜, 표절의 종류와 방법, 과목 내에서 주어진 과제가 차지하는 점수비중, 표절의 심각성과 이 표절이 점수에 주는 영향, 학생이 14일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 반론권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과 함께 해당 교수의 신상정보와 서명과 날인이 포함된다(Academic Honesty: Checklist for Instructors at UC Irvine). 그리고 상벌 위원회나 학생처는 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 이에 대해 담당자를 정하고 그는 조사를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표절을 처리하는 책임자를 학생처 내에서 근무하는 이들 중 임명하고 있으며 주로 학생처 부처장을 선호한다. 만약 교수가 해당 학생에게 표절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담당자는 학생의 권리와 소명 절차에 관한 설명과 함께 학생이 저지른 표절에 관하여 보고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만 비밀리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학생의 그 과목 점수는 표절에 대하여 결말이 날 때까지, 비록 표절이 학기말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정되지 않음도 알린다.

조사가 시작되고 그 도중에 학생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당 교수가 인정하면 조사는 어떤 과정 중에 있더라도 그 즉시 중단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곤 교수의 보고서에 대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조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는 조사가 일단 시작 되면 담당자(주로 학생처 부처장)는 교수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을 소환하여 표절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면담 중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표절에 대해 시인을 하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원치 않으면 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처벌 절차로 넘어간다. 두 번째는 학생과의 면담 중 학생이 교수의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청문회가 열리게 되며, 이를 위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학생에게 재차 청문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청문회는 재판과정과 유사하며 보통 다수의 학생, 교수, 그리고 직원으로 이루어진 상벌위원회(Judicial panel) 앞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재판관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예를 들면 Stanford 대학교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열다섯 개 항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Procedural Overview). 이 문항들은 학생이 원치 않는 한 청문회는 비밀리에 진행이 되며, 학생이 원하면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증인을 부를 수도 있고 반대 심문도 할 수 있으며, 또한 학생과 교수는 자신에게 자문을 해줄 한 사람을 대동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청문회 개최에 관한 문항에 의하면, 상벌 위원회는 청문회 중 교수와 학생의 양쪽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엔 자신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글이 표절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며,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기각을 결정할 수 있으며, 표절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례와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결정하여 재판관(Judicial Officer)에게 통보한다. 위원회의 표절에 대한 결정 방식은 학교

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 위원들의 결정을 모아 평균을 내는 학교들도 있다(Rice University). 그리고 재판관은 상벌 위원회의 결정을 학교마다 다르나 학생처장에게 보통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처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한 후에 그 결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에 결정을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재검토 후에 내린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이 결정은 다시 재판관에게 이송되며, 만약 처벌이 퇴학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총장에게도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총장은 이 결정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후 재판관은 청문회가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에 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학생은 상벌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교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에 관한 재판과는 달리 학생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이 모르게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Stanford, Procedural Overview).

표절에 대한 처벌 수준의 결정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대학과 대학교들이 제정해놓은 표절에 대한 처벌 조항들을 살핀 후 이들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 학교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육관과 학교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표절의 정도에 맞게 처벌규칙을 정하여 이들 조항들은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예들은 단지 학생이 표절을 범하면 이런 수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보여주는 것이지 꼭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형태의 표절을 범했다더라도 학교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대학 당국들은 표절의 정도와 학생의 의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벌에 이른 표절의 경우는 그에 대한 대가가 교수가 단지 학생과의 비공식적인 면담 후 내린 처벌보다 더 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련의 학교들은(Ivy League Schools, Georgetown, Haverford, Vanderbilt, Stanford, MIT, Caltech, UC Berkely 등) Honor codes를 제정하여(Jou 1) 신입생들에게 읽게 한 후 서약을 받아서 이를 어겼을 시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수준

표절에 대한 처벌은 단지 성적에 한 할 수도 있으며 성적과 함께 추가적인 다른 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 성적에 대한 처벌은 최소 해당 글쓰기의 0점 처리로부터 그 과목을 'F' 처리까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표절의 정도가 심하면 정학 혹은 퇴학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처벌의 수준을 표절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상벌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권장 처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1. 공식적인 경고(Formal Warning/reprimand)

경고는 가장 약한 처벌로 표절이 정도가 미미하고 학생이 표절의 방지 방법을 잘 몰라 실수로 이를 범했다고 시인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되며 비록 보고는 했지만 교수도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경고는 실질적인 처벌을 동반하지 않지만 서면으로 엄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절이 재발할 시에는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고 있다. 경고는 보통 해당 과목의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감점을 하면서 표절이 포함된 글을 다시 쓰게 한다. 하지만 학생이 저지른 표절에 대한 경고는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된다. 경고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CSU, Fullerton에서 2008년 가을 학기에 입학할 하고 development writing 과목을 수강하는 한 외국인 신입생이-즉 문화도 잘 모르고 영어 대한 fluency나 competence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교수가 내준 작문 숙제를 하면서 타인의 글 일부에 대해 아무런 인용을 하지 않았다. 교수는 학생과 individual conference를 하는 동안 이를 발견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를 형식에 따라 인용을 하거나 다시 쓰기를 권고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학생이 최종 원고를 제출 했을 때 글이 고쳐지지 않은 것을 교수는 알았다. 이에 교수는 학생처 부처장에 알리면서 표절에 대한 처벌이 경고가 적합하다고 권고하였고, 부처장은 학생을 소환하여 표절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은 표절을 인정하지만, 과거에 자신은 자신의 나라에서 글을 이렇게 써 본적이 없다고 했

다. 이에 부처장은 서면으로 경고를 주었고, 학생에게 해당 글을 다시 쓰게 하였다.

경고의 다른 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생한 경우다. 두 학생이 자신들의 글쓰기 숙제와 take-home exercises를 다른 학생들이 살펴보도록 허락을 해서 그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도록 도와 표절이 발생하였다. 두 학생은 청문회에서 위원들에게 자신들이 한 행위가 표절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위원들은 이들의 변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는 학장의 경고를 다른 학생에게는 3개월간의 근신을 내렸다(Disciplinary Report 2005-2006).

2. 성적 감점(Lowering the Grade)

표절의 행위가 해당 글쓰기나 과목의 성적에 한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다. 학생의 표절이 실수로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에서 일어난 경우를 살펴보자. 2008년 9월 한 학생이 고급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research를 한 후 글을 쓰면서 이용한 정보에 대한 인용과 그 원 출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상벌위원회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청문회와 회의를 거쳐 학생이 Honor Codes를 어겼다고 결정하면서 그에게 해당 과목 성적을 'F' 처리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를 학생 개인의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다(Abstract of the Honor Council, Case #35).

라이스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2008년 가을 학기에 Pass/Fail 성적을 주는 저급 인문학 과목을 듣는 한 학생이 글 숙제를 하면서 타인의 글을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면서 footnote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글 속에선 인용부호를 누락함으로써 인해 기술적인 표절을 하여 Honor codes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상벌 위원회는 해당 과목에서 학생에게 3단계 점수 감점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학생 개인의 기록표에 남도록 하였다(Abstract of Honor Council, Case #3).

3. 근신(Probation)

근신의 기간은 학생의 의도와 표절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근신은 보통 표절이 확실하며 학생이 이를 의도적으로 저질러서, 그에 상응하는 벌로 그에게 반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글쓰기 과제는 "F" 처리되고 학교는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을 하게 되며, 만약 그 기간 동안에 표절이 또 다시 발생하면 학생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첫 번째 근신의 예는 UC Davis 대학교 신입생에 관한 것이다. 학생이 글을 쓰면서 약 두 쪽에 걸쳐 아무 인용이나 참고문헌도 없이 묘사한 것을 교수가 학생이 제출한 최종 원고에서 발견하였다. 교수는 학생이 글을 쓰는 동안 이를 발견하고 인용과 참고문헌을 글에 첨가하도록 경고를 주었지만 학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는 이 표절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학생은 표절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복사를 한 것에 대해 시인하였고, 표절은 의도적이지 아니며 글 끝에 한 번 인용을 해주면 표절이 아니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그 학생은 한 학기 동안 근신에 처해졌으며, 그 글은 0점 처리되었다(Jones).

두 번째 근신의 예를 살펴보자. 과거 표절의 전력이 없는 UC Davis 3학년 학생이 학기말 과제(paper)를 작성하면서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 인용을 했지만 참고문헌 란에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참조 부분에 대해선 그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표절을 의심한 담당 교수는 turnitin.com의 엔진을 이용하여 학생의 글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의 그것들과 비교해보니 여러 군데가 유사한 것을 밝혀냈다. 학생은 교수에게 이런 잘못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그 학생은 표절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면담을 지정한 날짜에 나타나질 않았다. 그 결과로 이 학생은 졸업 전까지 근신에 처해졌고 해당 숙제는 0점으로 처리되었다(Jones).

근신의 세 번째 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어난 것인데, 비록 상벌 위원회 위원들은 학생이 실수로 표절을 실수로 저질렀다고 믿었지만 청문회 도중 학생이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이에 대해 질책성 서신과 함께 학생을 지도성 근신에 처하였다(Princeton Disciplinary Report 2005-2006).

4. 지도성 제재(Disciplinary Sanction)

지도성 제재에 해당하는 처벌은 학생이 경고를 한 번 받았거나,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이 제재의 목적은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제재는 해당 과목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이에 더하여 부차적인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대한 예로는 UC Davis 일학년 학생이 상벌 위원회에 두 번째로 소환이 되었는데 이번엔 글쓰기 표절이 문제가 되었다. 글쓰기 숙제를 하면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복사를 한 후에 이들을 약간씩 고친 후 인용을 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였다. 교수는 이를 발견하였고 학생은 이에 대해 시인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은 졸업 전까지 표절에 대한 개인교습, 사회봉사 참여, 표절 방지에 대해 배우는 workshop 참석, 표절에 관하여 한편의 글쓰기를 하도록 명령 받았다(The California Aggie, 1/28/09).

5.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는 표절을 범한 학생이 실질적으로 반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학교 내 다른 일을 시키는 방법이다. 과목에 대한 성적은 정도에 따라 해당 글쓰기에 대해 '0'점을 주거나 과목 자체에 대해 'F'를 준다.

예를 들면, UC Davis 대학교 한 학생이 집에서 써오기 마지막 시험(Take-home final exam)을 보며 내용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글에 대해 인용하지 않아 학생 선도위원회에 호출이 되었다. 학생의 답안지는 교실에서 다른 마지막 글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꼈다. 학생은 교수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수는 답안지 작성 시 모든 내용은 적절하게 인용을 하라고 명확하게 알렸다고 했다. 학생은 졸업 전까지 Learning Skills Center의 일과 연관된 1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지도성 제재에 처해졌다(Aggie 4/16/2008).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글 숙제에서 다른 두 출처로부터 인용도 없이 그대로 베꼈다. 후에 표절을 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학생은 지도성 제재와 함께 15시간의 사회봉사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글쓰기 점수는 0점 처리 되었다. 만약 후에 학생이 표절을 다시 범한 것이 밝혀지면 퇴교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다(The California Aggie, Campus Judicial Report, 1/15/2009).

6. 졸업 지연 (Delay of Degree Conferral)

이는 보통 4학년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다. 졸업이 다가와 다른 마땅한 처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대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절을 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내려지는 처벌이다.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처벌 보고서(2005-2006학년도)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이 글쓰기에서 표절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 않는 과제를 여러 번 제출하여 졸업을 6개월 유보 당했다(Discipline Report 2005-2006). 상벌위원회가 이런 처벌을 내린 이유는 청문회가 봄 학기에 열렸을 뿐만 아니라 두 과목에서 허락도 없이 같은 글을 제출한다는 것이 대학의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학생이 몰랐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표절의 사건이 2006-2007년도에도 일어나 같은 처벌을 받았다.

7. 정학(Suspension)

학생 본인도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고 또한 표절의 정도가 심하며 표절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과목 'F'라는 성적 처리와 함께 정학이라는 처벌이 내려진다. 스텐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의 한 예를 살펴보면, 한 편의 글 숙제 중 상당부분에 대해 표절이 발견되었고 학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한 학생이 지난 학기에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서 제출했던 글 숙제를 다른 학생이 빌려 다시 자신의 과목의 숙제로 제출한 것이 발각이 난 후 그 학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한 학생이 지난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썼던 글 숙제를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시 제출 하였는데, 교수가 이런 행위를 금한다고 해당 과목 syllabus에서 명확히 밝혀놓은 경우 등에 대하여 상벌 위원회는 한 학기(quarter제) 정학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명시를 하였다(Sample Plagiarism Cases).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두 과목에서 연속으로 표절을 저질러 2년의 유기정학을 받았다 (Princeton University, Discipline Report 2005-2006). 라이스 대학교에서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어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과목 'F'와 함께 2 학기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의 기록표에 남기도록 하였다. Honor council에 의하면 학생은 저급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2개의 글쓰기 숙제에서 표절을 범했다고 했다 (Abstract of the Honor Council, Case#15).

8. 퇴학(Expulsion)

퇴학은 표절의 사안이 중대하여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을 때 주어진다.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이 퇴학 조치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표절을 범한 후에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증거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표절에 관련이 없는 결백한 다른 학생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Princeton University, Discipline Report 2005-2006). 퇴학에 대한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서 발생한 표절 스캔들이다. Thomas Jefferson에 의해 세워지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대학교는 명예를 중히 여기는 규칙(Honor codes)을 세워 학생들이 이에 서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면서 무감독 시험을 치게 한다.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는 학교에서 일어난 표절이기에,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겨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 48명의 학생들에게 퇴학 조치를 했다. Sampson에 의하면 버지니아 대학교는 글쓰기에서 한 번만 표절을 범해도 퇴학을 시킨다고 한다.

9. 학위취소(Revocation of Degree)

학위 취소는 보통 졸업생들에게 부과된다. 학생이 졸업을 하여 다른 처벌이 불가능하고 통과된 학위 논문이 표절이 너무 심해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일 때 내려진다. 하지만 학교에 의해 학위취소가 이루어질 경우엔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위 취소의 예로는 2002년 11월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일어난 다수의 학생이 포함된 표절 사건에서 졸업생 중 3건의 학위가 취소되었다. 또한 오하이오 대학교 기계 공학과에서 일어난 스캔들에서도 한 건의 논문이 취소되어 졸업생 중 한 명이 학위를 잃어 버렸다. 헌츠빌 소재 앨라배마 대학교(University Alabama in Huntsville)에서도 1997년도에 수여 했던 박사학위를 1998년도에 논문 지도 교수의 요구에 의해 교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취소하였다. 이유는 표절이 심해 논문의 독창성이 현저히 떨어져 학위 수준에 맞지 않아서였다(A Matter of Degree). 또한 1990년 테네시 대학교에선 한 논문이 지도 교수가 공동 집필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의 복사판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 저자의 철학 박사학위를 철회하기로 했다(A Matter of Degree).

결론

글은 작가의 피와 땀의 결정체다. 학생들의 글쓰기 표절에 관한 교수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글쓰기의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일은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점수를 주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절을 방지함으로써 교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언어로 이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독려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만약 학생이 어떤 이유에선가 남의 글이나 생각을 별다른 노력도 없이 그리고 적

절한 인용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자기 것 인양 글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면 이를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 표절 발생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물론 때에 따라 교수가 어찌할 수 없는 학생들도 가끔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해당 글쓰기 교수의 철학과 의지와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규칙과 학칙을 교실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글쓰기(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교육이 다른 과목에 비해 교수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표절을 밝히는 일을 외면하면 편법을 써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미국 대학들의 표절에 관한 적발은 정의와 범질서를 중히 여기는 미국 사회 분위기에 상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 규율을 알고서도 여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차 없이 치르게 한다. 이런 방침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법과 규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학교들은 표절에 관한 사항들, 즉 표절의 정의, 형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 표절의 회피 방법, 처벌의 과정과 수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모든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 웹 사이트나 학생 수첩에 공표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도 예외 없이 학기가 시작되면 강의 계획서(syllabus)에서, 수업 시간 중에, 그리고 글쓰기 숙제를 내줄 때마다 표절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적발 시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다. 물론 학생이 표절을 처음 범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선 학생을 계몽하겠지만, 학생이 표절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 이를 거의 용서하지 않는다.

표절은 학생에게나 교수에게나 그리고 학교에게나 여러 면을 따져볼 때 방지가 최선이다. 최근엔 경제적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감에 따라 글쓰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일은 교수들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발달로 인해 학생들은 전보다 더 쉽게 글 숙제를 구입하거나, 타인의 글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취하여 마치 자기 것 인양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상의 여러 웹 사이트에서 구한 정보들을 짜깁기 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하기 쉬워졌다. 하지만 많은 교수들도 일부 학생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수수방관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표절을 하면 교수들도 인터넷 상의 표절을 가려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발을 한다. 특히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글쓰기 과정 지도 교수법 (Process-oriented pedagogy)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글쓰기 주제와 장르에 대한 숙제를 받고 마지막 원고를 제출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표절을 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한다. 즉 학생들에게 표절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표절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면서,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록 지도과정이 숨바꼭질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참고자료

Alan Finder. "34 Duke Business Students Face Discipline for Cheating." New York Times [New York, N.Y.] 1 May 2007, Late Edition (East Coast): A.15. New York Times. ProQues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Pollak Library, Fullerton, CA. January 5, 2009. .

THE ASSOCIATED PRESS. "Ohio University revokes engineering graduate's master's degree: Action is most severe response in plagiarism probe examining dozens of research papers." Charleston Daily Mail [Charleston, W.V.] 29 Mar. 2007, 6D. ProQuest Newsstand. ProQues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Pollak Library, Fullerton, CA 5 January 5, 2009. .

The Associate Press. "Plagiarism Involving Foreign Students Stirs Controversy at Ohio University." August 16, 2006. DiverseEducation.com. Jan 15, 2009. .

The California Aggie. "Campus Judicial Report." Search Results. 2008-2009. UC Davis. June 4, 2009.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Faculty Resources." Judicial Affairs. 2002. Dean of Students Office. December 15, 2008.

Chong Sei. "Going to Trial with the Honor Council." *The Thresher Online*. April 21, 1995. Rice University. June 4, 2009.

Clark, Kim. "Taking a Bite Out of Cheating, With the Help of Technology." *U.S. News & World Report* 145.8 (13 Oct. 2008): 74-78. Military & Government Collection. EBSCO. [CSUF Library], [Fullerton], [CA]. May 14, 2009.

Embleton, Kimberly, and Doris Small Helfer. "The Plague of Plagiarism and Academic Dishonesty." *Searcher* 1 Jun 2007: 23-26. ABI/INFORM Trade & Industry. ProQues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Pollak Library, Fullerton, CA. 5 Jan. 2009.

Fritz, Mark. COLUMN ONE; Redefining Research, Plagiarism; Going online to get homework isn't a novel thing. To some students, it's not even cheating. It's just evolved into an institution; a big study group of sorts. [Home Edition]. *Los Angeles Times*, p. 1. Retrieved January 5, 2009, from Los Angeles Times database. February 25, 1999. (Document ID: 39649261).

Gresham, Keith. "Preventing plagiarism of the Internet: teaching library researchers how and why to cite electronic sources." *Colorado Libraries* 22 (Summer 1996), 48-50.

Hope College. "What are Penalties?" *Plagiarism*. 2007. Hope College Van Wyllen Library. September 14, 2008.

Kopytopp, Verne G. "Brilliant or Plagiarized? Colleges use sites to Expose Cheaters." *The New York Times* January 19, 2000.

Michelle Boorstein. "U-Va. Expels 48 Students After Plagiarism Probe." [FINAL Edition]. *The Washington Post* [Washington, D.C.] 26 Nov. 2002, B.01. ProQuest News stand. ProQues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Pollak Library, Fullerton, CA. 5 Jan. 2009.

Facts about Plagiarism. 2009. *Plagiarism.org*. January 15, 2009. G.E. Gorman. "The Plague of Plagiarism in an Online World." *Online Information Review*. Bradford: Vol.32, Iss. 3 2008, p 297.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How to Recognize Plagiarism." *School of Education*. 2005. IU Bloomington, School of Education. December 19, 2008.

Jones, Andy. "Plagiarism Cases Cited in the California Aggie." *Responsible Use of the Web*. Department of English, UC Davis. December 16, 2008.

Jolly, Peggy. "The Ethics of Plagiar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Conference 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9th, Chicago, IL, April 1-4, 1998).

Jou, Ted. "A Comparative Study of Honor Systems." Appendix D. March, 2009. Caltech, ASCIT History of Undergraduate Self-Governance at Caltech. June 9, 2009.

Lin, Tongyan. "Plagiarism Cases Increase, Long Term Stats Stay Flat." *The Tech Online Edition*. April 24, 2004. MIT. December 9, 2008.

Lurie, Jason L.. "A Plague of Plagiarism: On Academic Dishonesty, Harvard fails to seek salvation." February 16, 2005. *The Harvard Crimson*. December 9, 2009.

McCabe, Donald. "Faculty Responses to Academic Dishonesty: The Influence of Honor Cod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Oct. 1993, Vol. 34 Issue 5, p647.

McGuirik, Shawn. "Working toward Academic Integrity." *Student Affairs Leader*. 4/15/2007, Vol. 35 Issue 8, p1-4.

Preventing Plagiarism. 2003. The University of Alabama in Huntsville. 14 April, 2009.

Princeton University. "Discipline Report: 2005-2006." *Annual Discipline Report*. 2009. Princeton University, ODUS. February 12, 2009.

Princeton University. "Discipline Report: 2006–2007." Annual Discipline Report. 2009. Princeton University, ODUS. February 12, 2009.

Pruitt–Mentle, Divina. "Plagiarism in 21st Century: Paper Mills, Cybercheating, and Internet Detectives in the Electronic Ages." University of Maryland, Cyber–Seminar Plagiarism. 21. July 16, 2002.

Rice University. "Abstract of Honor Council: Case #35." Rice Honor. June 1, 2009. .

Rice University. "Abstract of Honor Council: Case #3." Rice Honor. June 1, 2009. .

Rice University. "Abstract of Honor Council: Case #15." Rice Honor. June 1, 2009. .

Sampson, Zinie Chen. "Students Expelled from U.VA Shopboard Program for Plagiarism." Associate Press. August 11, 2008. Hamptonroad.com. June 8, 2009.

Schemo, Diana Jena. "U. of Virginia Hit by Scandal Over Cheating." May 10, 2001: New York Times. .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Questions Related to Plagiarism." 2004. Stanford University. December 9, 2008.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Graphic Flow–Chart of Process." Site Map. Stanford University. September 16, 2008.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Procedural Overview." Site Map. Stanford University. September 16, 2008. .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Sample Plagiarism Cases." Site Map. Stanford University. October 14, 2008. Tschirhart, James. "Plagiarism Cases up 47 Percent." Northern Star Online.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September 2, 2008. .

University of Alabama in Huntsville. "A Matter of Degree..." Office of Counsel. January, 2003. University of Alabama in Huntsville. June 8, 2009.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cademic Honesty– Faculty Resources." 2008 Revised. UC Irvine. December 11, 2008.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cademic Honesty: Checklist for Instructors." UC Irvine. December 8, 2008.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cademic Senate." 2008 Revised. UC Irvine. December 11, 2008. .

USA Today. "Wal–Mart heiress returns USC diploma after cheating report." October 19, 2005. .

Article Abstract

Punishment Procedure and Penalties of Plagiarism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Jai Hee Ch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This paper introduces how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run their rules and regulations on students' plagiarism. Detecting student plagiarism is an on–going battle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Some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Honor Codes' that students should not violate

without any surveillance from the school. Most of the schools firmly announce to the students that plagiarism is an academic dishonesty, which will be severely punished in case they happen to commit it. The schools also delineate the types of plagiarism, procedure of hearing, and subsequent penalties in various ways, which the students can easily access to read. As penalties, the consequences of plagiarism, are severe, professors continuously educate their students not to commit plagiarism, when the students write, in the course syllabus, during class, and even in the writing assignments.

However, once plagiarism is committed, investigation, hearing, and penalties follow. And punishing plagiarism takes the similar procedure of a law court. If a suspicious student is caught for plagiarism in his/her writing by his/her professor, its case will be first investigated thoroughly usually by the Associate Dean of Students Affairs. When s/he appeals against the professor's report, a hearing for the case will be open in front of the judicial affairs committee that consists of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s. After the hearing, the committee have a closed meeting in which they vote for their decision on the appropriate penalty such as formal warning, probation, lowering the grade, disciplinary sanction, suspension, expulsion, and revocation of degree.

The American academia knows that the best way for plagiarism is prevention not punishment, which initially depends on the professor's volition of whether s/he willingly wants to be the guard of the academia. Prevention helps the students to be 'a thinker' eventually.

Key words: Plagiarism, honor codes, punishment procedure, and penalties.

* 이 원고는 2009년 7월 4일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 교육을 통한 대학생 연구윤리 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